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27장(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갈 이
※ 교 독 문	..... 19(시편 32편) ..... 다 갈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찬 송	..... 53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다 갈 이
예배기도	..... 1부 김선주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	
*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시편 23:1-6 ..... 정정희권사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하나님과 친밀하라-코이노니아(1)> 최세열목사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다 갈 이
봉 헌	..... ( 3 구역 ) ..... 다 갈 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갈 이
※ 축 도	..... 최세열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인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김인순권사	기 도 / 한마음기도	(마태복음강해)	
본 문 / 딤편 3:14-16	본 문 / 디도서1:11-	<b>금요기도회</b>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금요일 오후9시	
바울 목회자 7스피릿	“할례당의 거역”	개인기도, 중보기도	
제1과 목적이 분명한 목회자	주기도문 / 다같이	함성기도	
주기도문 / 다함께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 음 주 기 도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1부 안복선집사
	헌금위원	7월 김기희 신공님 허 웅 김귀례	2부 루디아회
		8월 최경선 주중임 안혜숙 김연학	1부 인 도 자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A	2부 루디아회
헌신찬양	금주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인순권사
		3구역	루디아회

### 하나님과 친밀하라-코이노니아 / 시편 23:1-6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실은 때때로 결핍과 낙심을 짐으로 안겨 줍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결핍들을 무엇으로 채웠다 싶은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빈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도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만족한 인생,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신명기6: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친밀함입니다.

#### 1. 친밀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서로에 대한 요구와 목적성취만이 남게 됩니다. 사무적이고 일 중심적인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이중 구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만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주일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2. 친밀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풀을 먹인 후에 양들을 우리에게 넣고 문지기에게 맡깁니다. 한 우리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떼가 들어갑니다. 아침이 되어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곧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 낼 줄 압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나아가고 멈추어야 할 때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지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의 생활, 곧 푸른 풀밭과 설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순간이나 풀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풀리앗은 겁만 주는 허깨비에 불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풀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식사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28:15, 수1:9).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성령강림후 여섯째 주일(7월 13일)

### 제 29 과 그 영을 분별하라(요한일서 4:1-3절)

(함께 읽을 말씀 : 열왕기상22:19-23절, 마가복음 3:20-30절)

#### 말씀묵상

1. 거짓 예언자, 사이비 이단 종교는 언제 일어날까요? 사회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일어납니다. 탄탄대로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잡으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아니라 범 꼬리라도 우선 잡고 보겠지요. 사이비 종교는 불안과 절망을 먹고 부흥합니다. 거짓 종교가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동시에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자라납니다. 기존의 신앙인들이 무책임할수록 이단은 극성을 부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면 거짓 종교는 우리 사회를 향한 경종이며,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경계 경보, 아니 공습경보라 할 수 있습니다.

2.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지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은 때에 거짓 영이 극성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영은 그렇게 이른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가 꾀회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특히 이른바 교회 안에 '첫' 이단이자 '마지막 이단'이라는 '영지주의' 전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을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속된 육체로 오실 수 없는 분이어서 다만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가현설). 거짓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거룩하고 무흠무결한 영적 존재라서 애초부터 속되고 불완전한 유한한 존재인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지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속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불경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3.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영적 존재로 추앙한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받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송두리째 사탄에게 바치려 합니다. 신앙은 육체의 영역인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역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모든 육체와 세상을 지배하려는 맘몬의 음모입니다.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세속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오히려 경건주의와 금욕주의의 탈을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육체와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으려는 게 거짓 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다음 주일 예배는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루디아회가 함께 합니다. 루디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해든술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청소년부와 어린이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부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계속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일과 20일에는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박홍만 정정희 박상귀 공영순 노순영 김상례 박희순 이현옥 지국남 정선례 양석임 이경훈
- 감사헌금 : 박정일 강항구 류종란 박희순 (일천번제)김동현 (생일)지국남 윤종원 김윤민
- 맥추감사 : 이경희 강경원 남궁순 정순임 박금순 양석임 정선례 주종임 김정민 김정화 오복실 한상호 차소라 심승기 노순영 정재영 최임춘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안복선 김애경 이현옥 이유선 윤종원 김동현 정숙자 최세열 조성순 김지환 양희임 김범진 강신근 한은미 강다미 강다원 강승리 허 웅 김순님 이상호 주근희 이근욱 김동현 이경훈 나금옥 조종순 김한순 이득만 박희순 방옥남 김춘자 박경자 김혜경 신공님 김애자 서영자 윤승호 최경선 김종천 이영선 이유자 이완수 김봉순 박기환 한옥자 박주한 김대봉 강은순 김기희 김병국 함경숙 박치국 이영란 김귀례 장영란 김인순 김홍영 황은상 박지영 이종봉 이춘호 함미경 나인원 나인애 강항구 류종란 이용훈 김영숙 이은구 이종춘 심문자 선우명환 장영분 무명3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양석임 박희순 이종춘 심문자 심승기 박상귀 공영순 김종천 이영선 강동균 김현아 에스더회
- 비전씨앗 : 배영인 나인원 나인애 강동균 김현아 강항구 류종란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교 제**

교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 멕시코 미틀라의 사포텍 족은 '교제'란 말을 "끓는 물"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열중한 변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 위의 질탕관의 끓는 물에서 가져온 비유다.

말꾼들이 밤에 어떤 방에 모여 앉아 자신들의 희망과 포부와 소원을 밤 깊도록 주고받는 것은 그들 옆에 있는 화로에서 질탕관의 물이 끓는 것과 같다는 비유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혼이 알 수 없는 어떤 지경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개인적이며 친근하고 실제적인 것을 비롯하여 세세한 것까지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제는 안전한 곳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적도 아프리카의 카레 족은 교제의 이 같은 측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교제는 "앞을 향하여 〇〇와 함께 우리의 발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랑방 친교의 온유함에 잠들기를 바라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넘고 앞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진취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인색한 영혼**

"나는 살아오는 동안 두 친구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그 두 친구들을 잃어 버렸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전에 가졌던 친구들을 잃어 버렸다. 우리들은 싸우지 않았는데도 전처럼 가깝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사가 모팻의 체험적인 고백이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대부분 인생의 실제로 보았으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 분께 감사드리려 되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알다시피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것은 인색한 영혼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는 속성이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위대한 정신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점에서는 감사를 포함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는 감사드릴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찬양이라는, 생명력 있는 박동을 하고 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8 2014.7.13.

**7월의 기도 2**

사랑의 주님  
 온 땅에 축축이 내리는 빗방울처럼  
 생명을 소생시키는 은총의 단비를  
 저희의 마음 밭에 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새 나라 새 땅을 허락하셨으나  
 저희의 이기적인 욕망은 자연을 망가뜨렸고,  
 이웃의 재물에 욕심내며 빼앗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나이다.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이 평화로 하나 되어  
 서로 열싸안아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비전을 품어 부흥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 보금자리이게 하시고,  
 넘치는 행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저희의 지식과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어 이루어 주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행하오니  
 십자가를 넘어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주소서.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교회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7월 20일 - 루디아회
2. 해든술선교활동 - 7월 12일(토) 오전 8:30
3. 어린이부성경학교 -6월29, 7월 6,13일 - 7월19,20일
4. 청년회 수련회 - 7월 중
5. 청소년부수련회 - 8월 4일-6일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